

오피니언

다산포럼

송재소



더러운 것을 씻어내어 깨끗하게 만드는 행위를 세탁이라 한다. 이 말은 주로 의복의 더러움을 씻는 데에 사용되지만 보다 광범위한 뜻으로도 쓰였다.

중국 송나라 때의 시인 소동파(蘇東坡)는 백수산(白水山)을 유방하고 쓴 시에서 "다만지 속된 마음 세탁할 수 있다면 / 신선과 선약(仙藥)이 나와 멀지 않으리"(但令凡心一洗濯 神人仙藥不我遐)라고 했다. 옷이 아니라 마음을 세탁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다. 역시 송나라 때의 문인 증공(曾鞏)은 "뭇 산이 푸르게 깨닫고 있어서 / 티끌과 안개가 세탁한 듯하네"(群山翠抱 塵霧如洗濯)라 하여, 공기 중의 티끌과 안개가 사라진 것을 세탁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세탁이란 어느 경우이건 맑고 깨끗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 이 말은 종래 사용되던 뜻과는 다르게 쓰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돈 세탁'이다. 돈세탁이란, 불법으로 취득한 돈을 정당하게

얻은 깨끗한 돈으로 보일 목적으로 또는 취득한 사실 자체를 아예 숨길 목적으로 그 출처나 소유관계를 은폐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대가성 있는 정치자금에 수수할 때 애용하는 방법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세탁 본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에는 '아동 세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 12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임양축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제인 정트렌카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그녀는 생후 6개월 만에 4살 된 언니와 함께 미국으로 입양되었는데 수년 전 친부모를 찾기 위하여 한국에 와보니 자신의 '가족 호적'과는 다른 '고아 호적'이 별도로 작성

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트렌카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태어난 날짜도, 태어난 곳도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저를 낳자마자 버렸다는 것도, 아버지가 저를 보육원에 두고 간 뒤 '친부와 친모는 함께 살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동의 신상정보를 조작하는 것은, 입양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양부모의 입맛에 맞춰 아동을 상품처럼 포장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입양인 중에서 후에 가족과 상봉하는 비율이 2.7%에 불과하

락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학점이 낮게 나온 학생들에게 횡수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재수강을 허용해서 성적을 올려주는 것을 말한다. 엄격한 재수강 제한 때문에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학교당국의 배려이겠지만 이런 현상을 두고 한 대학교수는 "대학이 학점 세탁소가 되었다"고 자탄하기도 했다. 요즘은 젊은 이들은 학점 세탁과 함께 '얼굴 세탁'도 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자연산'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지난해 연말에는 '4대강 정비' 문제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농성중인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가 "수자원공사를 통한 '예산 세탁'을 제대로 돌려 놓으라"고 요구했다.

세탁, 세탁, 세탁... 우리 사회는 각계각층에서 바야흐로 세탁하느라 여념이 없다. 세탁을 하면 더 깨끗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더러워지는 것이 오늘날 세탁의 현주소이다. 이 부적절하고 비정상적인 세탁 풍조를 진짜 세탁해버릴 날은 언제 올 것인가?

<성균관대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탁 시대

다고 했다. 입양 직전 아동이 사망했을 때 다른 아이로 바꿔치기를 하고, 친부모의 동의 없이 타인 명의의 동의를 조작하는 등 아동 세탁의 유형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적 세탁'도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중국산 위조 명품들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와서 마치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미국으로 수출하려 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이른바 국적 세탁이다.

어디 그뿐이라. 각 대학에서는 '학점 세

탁'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학점이 낮게 나온 학생들에게 횡수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재수강을 허용해서 성적을 올려주는 것을 말한다. 엄격한 재수강 제한 때문에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학교당국의 배려이겠지만 이런 현상을 두고 한 대학교수는 "대학이 학점 세탁소가 되었다"고 자탄하기도 했다. 요즘은 젊은 이들은 학점 세탁과 함께 '얼굴 세탁'도 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자연산'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문인

다사다난했던 기축년이 지나고 희망찬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60년 만에 찾아온다는 백호의 해라고 한다. 백호는 예로부터 영물로 여겨져 청룡, 주작, 현무와 함께 네 방위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신성시해 왔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그 어느 해보다도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의 희망을 이야기한다.

광주시에서는 2010년 경인년 한해를 경제가 살아나고 문화가 꽃피는 1등 광주 건설 약진의 해로 정하고 광주발전의 중추적인 전환기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살펴보면 시민

발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포츠·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과 광주의 문화적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와 제3순환도로 건설, 광주와 화순, 광주와 나주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한국전력 등 17개 기관이 전을 앞당겨 국토 서남권을 선도하는 중추도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

기고



김경숙

장영주라는 한국이름도 갖고 있는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의 리사이틀이 지난 연말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있었다. 워낙 유명하고, 유명한 만큼 바쁜 그녀인지라 그동안 모국에서 연주회를 갖는 것도 대부분 서울에서 열리기 일쑤였는데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리사이틀은 광주를 비롯 대전, 제주 등 열 곳의 지방도시를 골고루 배려해 순회공연을 하고 있었다.

지방에서 살고 있는 음악애호가로서는 음반으로만 듣던 그녀의 연주를 직접 듣고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서울까지 가지는 못할망정 광주라면 연주

4층은 여성 전용, 5층은 남성 전용 인식을 한정 발매한다. 좌석에 있는 청중들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서 가난한 연인들은 4층과 5층에서 따로 감상하다가 막간을 이용해 층계나 통로에서 만나 감상평을 주고받기도 한다. 그들보다 호수머니가 더 많은 학생들, 연금자들, 배낭여행객들은 천국만큼 아슬아슬 높은 7층에서 기둥 크레임바, 안세 스피커 무더 등 현존하는 대가들의 연주를 귀를 기울인다.

시내버스 요금 몇 번을 아끼면 티켓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연 요금은 서민들에게 턱없이 높기만 하

대형공연, 문턱을 낮추라

회가 끝난 후 막차를 충분히 타고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공연요금을 보는 순간 모든 계획은 비누거품처럼 사그라지고 말았다. 최저가 6만16천 원, 최고가 15만4천 원. 로열석 요금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서민아파트의 월 임대료 세배를 넘고 있었다. 아무리 금전적으로 환원할 수 없는 예술의 감동이라고는 하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입장에서는 망설임 수밖에 없는 가격이었다.

결국, 단념은 했지만 불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돈 없는 사람은 평생 연주회 한번 제대로 못 가본다는 거잖아! 내가 잠시 살다가 온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개관 90년이 넘는 타이프스 홀론이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3대 오페라극장으로 꼽는 명소이다. 플라메아라고 불리는 1층부터 배라이소라고 불리는 7층까지 있는데 '천국'이라는 의미의 7층 배라이소는 입석 전용이다. 또한,

다. 프로그램과 연주자를 들여다보면서 이리저리 재보다가 겨우 한두 번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 갈 수 있을 정도다. 그러니 사라장같은 명연주자 공연은 그림의 떡이다.

더구나 실제 당시부터 입석은 아예 배제된듯한 내부구조는 시내버스비가 아니라 택시비를 아꼐나 해도 입장이 불가능하게 돼있다. 마침 광주시 문화예산이 올해보다 50%여 늘 늘어났다고 한다. 물론 쓸 곳이 많을 테고 용처도 이미 정해졌겠지만 그중 단 얼마라도 서민들에게 할애할 수는 없을까?

가령 연중기획공연으로 수준급 초대 연주회를 마련해 서민들도 임대료와 복고하지 않고 티켓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광주는 그야말로 이름에 걸맞은 빛고를 문화도시로 다시 한 번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가난한 애호가도 공상 같은 꿈을 펼쳐본다.

<주부>

기사를 가장한 보험광고 지나치다

요즘 사람들이 교묘하게 뉴스 기사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나 패섭하다.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보험'이라고 치면 중 8~9건은 기사를 가장한 보험광고가 나온다. 기사내용 또한 보험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소위 '뉴스' 기사가 대부분이다. 낱생 처음 보고 듣는 언론사 이름으로 보험상품에 관한 칭찬성, 잊점, 상품의 장점만을 골라 기사처럼 올려놓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게 다 가짜 기사들이다.

언론사 이름도 00타임즈, 00데일리, 00매거진뉴스 등 처음 듣는 이상한 것들이다. 뉴스 기사를 가장한 보험광고의 대부분은 신문기사 신뢰성의 탈을 쓰고 상품의 장점만 극대화하여 홍보하고 있다.

만약 광고를 한다면 이런 일방적인 장점만을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편법이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 혹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소비자 독자가 계시다면 이런 가짜 기사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용규·광주시 남구서1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번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도 지급합니다.

시설

'지역발전 전기 마련' 실천이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4일 신년 국정연설은 집권 3년차를 맞는 정부의 각오와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글해 국정구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글로벌 외교강화 등 3대 국정운영 기조와 경제회생, 교육개혁, 지역발전, 정치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변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지역발전 부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종시 원안 수정 등에서 보듯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에 비해 후퇴했다. 오히려 지방과 수도권 간의 갈등과 양극화는 심화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를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역의 일자리를 늘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혁신도시, 기

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은 비록 구체성이 결여되고 지금까지 거론된 것을 나열한 수준에 그쳤다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강력한 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한 것은 나름대로 진일보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문제는 진정성과 실천이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는 현안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제도적 지원이 가시화해야 한다. 특히 곧 내물을 세정시 수정안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다. 수정안이 광주·전남 등 다른 지방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가.

올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이 공수표(空手票)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지방공무원 '향피제' 부작용 최소화해야

정부가 토착비리 척결 차원에서 연고지와 무관하게 지방공무원의 보직을 주는 향피제(鄕避制)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달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직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에 지방공무원 1980명을 다른 자치단체로 옮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류 대상 공무원에는 감사·인사·건축·세무·회계·교통 등 비리에 취약하거나 권한이 같은부서에 재직 중인 4~6급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들이 한곳에 장기근무하기 때문에 비리가 생겨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향피제 도입 배경이다. 행안부는 아예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자치단체 간 공무원 순환 교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향피제 연고지 배치 모두 장단점이 있다. 연고지로 가면 지역 사정을 잘 알아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한 반면 토호세력과 '연고'로 얽힐 가능성이 높다. 거꾸로 상피제 원칙에 따라 연고가 없는

곳으로 가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역 실정에 어둡다는 문제가 있다.

국세청과 검찰이 일제감치 향피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제한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찰도 2000년부터 공개적으로 운영했으나 비숙련인유로 시행 2년 만에 중단한 바 있다. 과거에는 뚜렷한 방침 없이 장관이나 청장의 철학에 따라 향피제나 연고지배치제가 번갈아 가며 시행돼 혼선이 일기도 했다.

향피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인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형식적인 순환보직으로는 토착비리 근절을 기대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1년 순환근무의 문제'를 지적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비선호 지역 근무자에 대한 인사 인센티브를 체계화해 일정기간 근무 후 성과에 따라 근무지 및 보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2010년 경인년(庚寅年)을 맞았다. 엄밀히 따지면 음력 설인 2월 14일이 돼야 경인년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제는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게 통상적인 일이 됐다.

새해가 되면 각계에서는 신년사(新年辭)를 내놓는다.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과 기관단체와 기업체나 수장들이 한해의 설계서라고 할 수 있는 신년사를 발표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우리가 갈 길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면 영원히 번영할 수 있다'는 '일로영일'(一勞永逸)의 자세로 한 해를 보내자고 당부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우리는 적이 아닌 형제"라며 "전쟁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자"고 인류에 호소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이 G20의 강국으로서 강화된 위상을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꿈을 가져줄

것을 역설했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웅장한 스케일의 신년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달성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개혁 원년'을 맞는 포부를 다졌고, 다른 나라 원수들은 경제회복을 다짐했다.

올해 지구촌 각국의 신년사 가운데

단연 우리의 주목을 끈 것은 북한이었다.

북한은 1일, 자신들의 신년 계획을 소개하는 2010년 공동사설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제일본 조선선언문 합회 기관지 조선선보

는 북한이 공동사설에 대해 "올해의 '극적인 사변'을 예감케 하는 의지 표명"이라고 해석, 남북정상회담이 화두에 올랐다.

지구촌 각계 각층에서 나온 희망찬 신년사가 연달아 일어나 현실이 되느냐가 올해 행복지수다.

/박치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신년사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subscription rates.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